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김홍섭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 expansion Strategy of New Maritime Culture in Korea

Hong-Seop Kim

목 차

1. 서론
2. 문화 및 해양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 이론적 체계화
4. 해양문화의 도입 실태
5. 여건변화와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 확장 전략
6. 결론 및 제언

Key word: 해양문화, 수산문화, 항만문화, 문화, 해양예술, maritime culture, ocean culture, port culture, maritime art, fishery culture

Abstract

21 C is called the age of Culture and it is underlined in all the Areas of Human lives. Among all activities, Culture oriented Thinking and activities and strategies through and for Culture establishing are emphasized. As Sea may appear as a image of longing and challenge for the unknown world, Port is understood as a link which connect Sea and Land. Sea, Island and Port are the basis of human lives, economic working areas and communication spaces with nature. Sea and Port have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human History as the space of Life, Work, Play and Imagination. The Maritime activities has been developed as the type of a Culture, including various diversities according to the time and space.

This Paper suggested a definition of Maritime Culture and Theoretical review and groped introduction and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for expansion of systematic Maritime

▷ 논문접수: 2010.10.31 ▷ 심사완료: 2010.11.27 ▷ 게재확정: 2010.12.08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필자의 학술대회(2010인천물류포럼.12.10)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hongskim@incheon.ac.kr, 032)835-8539

Culture. Maritime Culture not only enhance the quality of Citizen life but also contribute the progress of National economy increasing the quality of Culture, Turism and Environment and the expectation of it has been enlarged. It is needed to introduce and expand Maritime Culture systematically through theoretical framework suggested by this paper, and additional research may be necessary for the detailed solutions and countermeasures.

I. 서론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하며, 인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문화가 중요시되며 모든 활동에서 문화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를 통한 그리고 문화의 정립을 위한 활동과 전략들이 중요시 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해오던 경제학도 20세기 중반이후부터 케인즈(J.M.Keynes), 리카도(D. Ricardo) 등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를 반성하고 기술, 산업분야에서도 인간의 감성이나 문화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바다는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도전의 이미지로 다가오며, 항만은 인간이 살고 있는 육지와 동경의 바다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이해된다. 바다와 섬과 항만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경제활동이며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삶과 일과 놀이와 상상의 공간으로서 바다와 항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모해 왔으며 시간과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다양성을 담지하는 문화의 형태로 발전되게 된다. 본고에서는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론적 검토 그리고 도입 및 확장을 위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문화 및 해양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1 문화의 개념 및 선행 연구

1) 문화의 의미

文化를 뜻하는 영어단어, culture가 '경작하다'에서 유래하였듯이 자연을 개조하여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최초에는 '자연을 개조한다'는 의미였지만 그 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관계, 인간활동, 지식과 실행의 총합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고 발전하였다. 유네스코(UNESCO, 1976. 11. 26)의 정의에 의하면 文化는 "소수의 지적 엘리트가 생산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人間の 藝術的 活動의 結果物뿐만 아니라 지식의 습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육구,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文化는) 藝術的 創造와 더불어 藝術作品과 物質文化, 스포츠와 게임, 야외활동의 해설, 제작 유포도 포함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역동적 정의로서 Canadian Commission for UNESCO에 의하면 “文化는 慣習, 信念, 規則을 배우는 力動的인 價値體系이다. 따라서 文化는 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단들, 또는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서로의 創造的 潛在力을 相互交換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준다.” 文化藝術은 한 지역, 국가 또는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지역, 국가, 민족에게 蓄積되고 歷史와 慣習 속에 살아있는 여러 형태들의 삶의 방식을 다양한 文化나 藝術形式으로 表現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는 특정지역이나 국가 등이 독자적인 戰略과 地域特性 등을 고려하여 특정 테마나 이미지를 표방하며 制度的·意圖的인 文化藝術을 勸獎·標榜하기도 한다.

2 해양문화와 선행연구

가. 도서 및 어로 행위적 접근

해양문화를 섬지역 주민들과 그들의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연구들이다. 홍석준¹⁾은 ‘도서·해양문화’란 개념을 이용하여 ‘섬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에의 적응이라는 가치와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고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적 환경과 독특한 역사적 경합과 불가분의 관계를 있음’을 지적한다. ‘도서문화’나 ‘해양문화’는 주로 역사학과 고고학, 민속학, 문학, 철학, 인류학, 지리학, 경제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해양문화의 지평을 확장하고 심화하기 위해 생태학, 수산학, 해양자원학 등의 자역과학적 차원도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은 역사보다는 전설과 신화, 민담 등의 구술의 전통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온

- 1) 홍석준, 「종교담론의 문화적 특성과 그 의미: 전남 완도군 생일도의 사례」, 『도서문화』 제29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 403~439쪽.
- 2) 알프레드 마한,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책세상, 1999.
- 3) Acheson, James, M., "Anthropology of Fishing."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0, 1981, pp.275~316.
- 4) Akimichi, T., "Conservation of the Sea: Satawal, Micronesia," In Traditional fishing in the Pacific: Ethnographical and Archacological Papers from the 15th Pacific Science Congress. A. Anderson ed., Department of Anthropology, Bernice P. Bishop Museum, Honolulu, 1986, pp.15~33.
- 5) Bailey, C. and C. Zeuner, "Community~based Fisheries Management Institutions in Indonesia", Maritime Anthropological Studies 5(1), 1992, pp.1~17.

것이 사실이다. 선사시대의 어로행위와 어민들의 해양생활에의 적응 등을 다루면서 어민과 어로문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어민들의 어로행위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논의가 주요 주제로 설정되어 이루어졌고, 어민들의 어로행위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논의가 관심영역이기도 했다.

나. 해양인류학적 접근

해양문화의 영역을 좀더 넓혀 해양에 연한 인간의 삶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접근이다. 일본에서 해양인류학이라는 용어는 니시무라 아사히타로우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해양인류학의 중심적인 과제는 어민의 사회적 성격 및 그 문화이다. 그렇다면 어로를 포함하여 어민의 생활 전 영역, 달리 말하면, 어민문화의 특색을 밝히는 것이 해양인류학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즉 해양인류학은 어민문화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방법으로는 문화생태학을 원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인류학 중에서도 문화인류학의 종래의 문화 연구가 자연환경과 생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해 온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일본의 해양인류학계에서 생태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바다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주모하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생태학의 개념과 원리, 이론과 방법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로는 고쿠부 나오이치를 들 수 있다. 그는 독일의 문화권설을 비판하면서 문화와 기술의 전파는 반드시 형태를 변하지 않고 전해지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이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적합한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생태학적 적응이라고 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민족문화는 중국과 한국에서 전래된 것이 적지 않지만 그것들은 일본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용된 것이라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 문명론적 접근

해양문화를 문명적 특성을 근거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을 일컫는다. 동아시아 해양 세계의 경계는 자연지리적인 경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 가치판단의 경계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의 자기 인식이 강해짐과 더불어 서구 세계와의 대비가 아니라 동아시아 자체의 역사적, 문화적 동인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가 심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문명론적, 지역론적 아시아론과 화이질서(華夷秩序)에 기초한 조공체계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류큐, 홍콩, 타이완 섬으로부터의 아시아론, 즉 해역 교역 네트워크론도 등장하고 있다.³⁾

2) 아키미치(Akimichi, T.), 2005: 24에서 재인용

3) 홍석준, 전계 논문 재인용

바다로부터의 ‘동아시아론’은 ‘바다’의 사상에 기초하여 동아시아를 둘러싼 종래의 경계와 그에 대한 인식의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다. 동아시아의 장기 역사변동을 주요 관점으로 종주, 주권, 네트워크의 상호작용과 해역, 지역 관계, 다시 말해 바다와 육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담론을 보다 구체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항구’가 바다의 출구, 육지의 출구라는 경계에 걸치면서 그것을 넘어섬으로써 분명 바다와 육지 양자는 역사적인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

라. 교역 및 경제지리적 접근

국가간 교역과 경제적 필요에 의한 무역의 관점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해양 교류는 고대부터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황해, 한반도 남쪽의 남해,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사이에 있는 동해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중해” 또는 “동아지중해”로 불리기도 한다.⁴⁾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교류에 대한 관심은 고고학 자료, 역사기록, 민족지적 기록, 해류, 해로 등을 고려하여 해상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로 이루어졌다.⁵⁾ 해상교류란 통상 바다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인간 활동을 일컫는다. 인간 활동에는 교역, 전쟁, 이주, 여행, 표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인간 활동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방적인 경우가 있고, 두 지역에서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해상교류란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양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⁶⁾

동아시아 해양지역에는 한국, 일본 및 화상들과 동남아 각지의 토착인, 인도와 아랍 지역의 무슬림, 유럽 출신의 상인들까지 국제적인 교역에 참여하여 왔다. 이는 동아시아 해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연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동아시아 해양 지역은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지역이었던 것이다.

21세기에 해양 또는 해역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지역권이나 다양한 문화가 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양의 권역, 해양을 통해 형성된 언어의 권역 등은 기존의 국민국가의 틀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와는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이나 여러 지역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협조체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협력체계를 통해 재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항구도시 네트워크와 같이 국가의 틀을 넘어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형 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진단과 예측 역시 해양세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 개념을 기존의 개념과는 달리 해석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⁷⁾

4) 최성락, 「고고학에서 본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교류」, 『도서문화』 제25집, 목포대 도서관화원연구소, 2005, 1~28쪽.
 5)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6) 최성락, 전계 논문
 7) 홍석준, 전계 논문

III.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 이론적 체계화

1 해양문화의 개념

해양문화는 바다와 해안, 섬, 항만이라는 공간적 현장에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오래 동안 살며, 일하며, 쉬는 동안에 축적되고 삶 속에 배어 있는 가치관과 삶의 양태이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범주 속에서 지향하는 가치로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창출되어 온 삶과 일과 놀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물론 광의의 해양문화는 바다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삶의 총체일 뿐만아니라, 예술행위로서 창조된 바다와 섬과 항만 등에 연관된 예술품을 포괄하게 된다. 해양문화는 바다와 그것과 인접한 항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갖는 가를 파악하는 기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바다와 항만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으로 나타나게 된다.⁸⁾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아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란 생텍쥐페리의 말은 무한한 꿈과 도전의 대상인 바다가 갖는 근원적 힘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해양문화의 이론적 체계화

1) 해양문화와 항만문화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文化를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감상과 이해(the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rt, and music .etc.)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또는 그룹의 習慣과 文明들 (the customs and civilization of a particular people or group)로 되어 있다. 인간의 욕구대상으로서 藝術文化, 自然環境, 建築物이나 歷史的인 거리(유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를 池上惇⁹⁾

은 러스킨(J. Ruskin)¹⁰⁾의 固有價値를 빌려 “人間의 生命發達에 貢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유가치란 물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과학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8) 해양문화는 영문으로 maritime culture/ocean culture로 표기되고 있으며, 전자는 해양활동과 사회과학 지향성이 강하다면 후자는 해양공간과 자연과학 지향성이 크다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고자 한다.

9) 池上惇, 文化경제학 입문, 강웅선 역, 매일경제신문사, 1996

2) Ruskin, J. "A Joy Forever" being the substance of Two Lectur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rt, Library Edition ,The Works of John Ruskin, Cook, E.T. and A. Wedderburn eds. George Allen, London, 1905, pp. 54-16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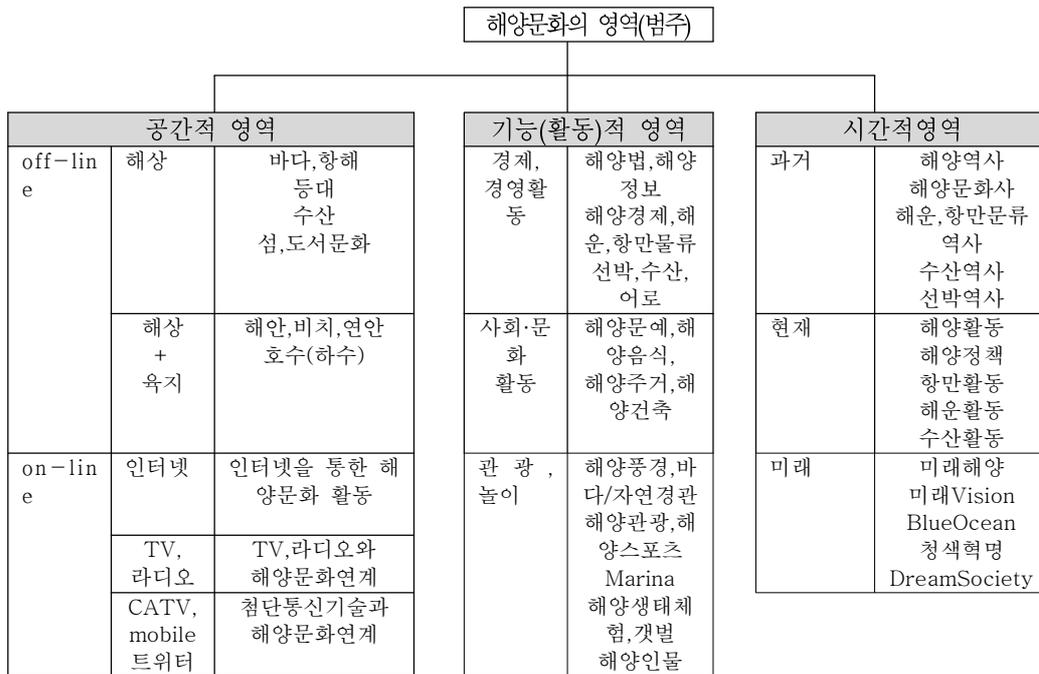
해양문화는 한 국가 전 해역의 바다, 연안 및 섬지역을 토대로 형성되고 유지된 인간의 여러 삶의 형태와 양식, 관습, 오래된 풍습 등은 물론 경제,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온 틀과 그것들과 연관되어 생성된 예술과 관광 등을 포괄한다.

港灣文化는 해양문화와 연관이 크며, 그 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보면 해양이 항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港灣文化를 별도로 정의한다면 港灣이라는 空間的 現場에서 어떤 地域의 사람들이 오래 동안 살며, 일하며, 쉬는 동안에 蓄積되고 삶 속에 배어 있는 價値觀과 삶의 樣態이며 過去, 現在, 未來라는 時間的 範疇 속에서 指向하는 價値로서 궁극적으로 人間의 삶의 質을 決定하는 한 要因이며, 또한 藝術行爲로서 創造된 藝術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港灣의 배경으로서 港灣文化는 港灣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港灣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갖는 가를 파악하는 기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港灣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3) 해양문화의 영역과 체계

해양문화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하다. 전문한 바와 같이 해양문화는 여러 학문적 영역에서도 접근되고, 연구되어 왔다. 여기서는 해양문화를 다양한 영역과 접근 방법에 의한 체계화를 시도하며, 각 학문과 영역간의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1>



IV. 해양문화의 도입 실태

- 해양관련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

유럽과 일본 등 선진 해양국들은 바다와 항만을 문화의 중요한 장으로 파악하여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항만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고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로테르담항, 암스테르담항, 함부르크항 등과 싱가포르항, 고베항 등은 오랜 역사 속에서 바다와 항만의 활동이 지역주민과 사회, 문화적으로 조화되고, 교육되어지며, 체험의 현장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과 바다와 항만의 개발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되고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바다의 보전과 섬과 항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해양사상의 고취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자연,생태적 관점

해양이 갖는 천혜의 자연과 경관을 중심으로 해양문화를 도입,확장하는 방안을 말한다. 세계의 주요 해양과 해안 자원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으며 대표적인 사례들로 다음의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갯벌체험 및 갯벌 보호

- 우리나라 : 서해안(강화, 서산,태안, 보령, 진도, 완도 등)과 남해안(순천만,남해)등
- 유럽의 경우: 독일 니더작센주 빌헬름스하펜에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와덴해(海) 3국과 갯벌보전-> 와덴해는 독일 등 3개국에 인접한 해역으로 갯벌면적만 우리나라 (2550km²)의 약 3배인 7500km²에 이르며, 우리정부도 "갯벌 보전, 복원에 경험이 풍부한 3국과 협력을 통해 갯벌 보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진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 세계 5대 갯벌 : 한국의 서남해안 / 캐나다의 동부해안 쪽 / 미국의 동부해안/ 유럽 쪽의 북해연안/ 브라질의(남아메리카) 아마존 강 유역,

■ 환경공원, 생태공원

- 우리나라: 인천(소래)생태공원
- 유럽 사례:
 - 생태공원은 1920년 초기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개념의 주제공원으로 인식

▶ 영국/ 윌리엄커티스 공원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조성된 영국 최초의 공원은 윌리엄커티스 공원으로서 1977년 템즈강의 탐교근처에 조성되었으며 주빌리 산책로를 따라 런던 중심으로 이어짐

져있다. 원래는 약 3천평 정도의 공공건물 건축용지로 계획되었던 공터였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생태위원회가 사업을 관장하였다. 상근자들이 식물군의 변화를 기록하였고 150여종의 식물을 파종한 이후 무척추동물, 조류, 포유류 등은 물론 20여종의 나비가 관찰되었고 1985년 건축을 위해 폐쇄되기까지 5만여명의 시민이 방문(그중 1/3은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를 계기로 자일스파이 공원, 라벤더폰드 자연공원, 스테이브힐 자연공원 및 캠리가 자연공원이 조성(http://report.woobi.co.kr/bbs/board.php?bo_table=B02&wr_id=68047)

■ 습지

- 우리나라 사례: 람사(Ramsar)협약, 람사 습지에 등록된 우리나라 습지

- 강원 양구·인제군 대암산 용늪(1997년),

대암산 용늪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고층 습지로 4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1억4000만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포늪은 70여만평에 100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 경남 창원군 우포늪(98년),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1억 4000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만들어졌다. 담수면적 2.3km², 가로 2.5km, 세로 1.6km로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다.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 가운데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듬해 3월 2일에는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습지가 됨.

- 전남 신안군 장도습지(2004년),

장도습지는 소규모 섬 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된 산지 습지다. 야생동물 205종과 습지 식물 294종, 식물군락 26개 군(群) 등 다양한 동식물이 발견.

- 전남 순천·보성 갯벌(2006년).

우리나라 연안습지(갯벌)로는 처음으로 순천만의 상단인 순천·보성갯벌이 국제적 습지 관련 기구인 람사협약에 등록. 세계적으로 1594번째 람사에 등록된 이 습지는 순천시 도사동과 해룡·별량면 일대 28km²와 보성군 벌교읍 일대 7.5km² 등 모두 35.5km²

순천·보성갯벌은 갈대군락, 칠면초, 어류 등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임.

- 제주도 '물영아리오름(2007년)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8 일대 0.309km²(약 6만 3000평) 규모의 물영아리오름은 세계에서 1648번째 람사습지로 기록. 습지는 화산활동에 따른 분화구 내 습지로

물장군(멸종 위기종 2급) 등 곤충 47종, 맹꽁이(멸종 위기종 2급) 등 양서·파충류 8종, 물 여뀌 등 습지식물 210종이 서식.

- 유럽 사례: ▪ 에스토니아 습지: 전 국토의 3분의1이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토니아를 '유럽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며, 특히 소마 국립공원은 원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자연유산으로 꼽힌다. 현지어로 '소마(Soomaa)'란 습지라는 뜻임. 1991년 국립공원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수많은 늪지대와 호수, 철새 도래지 등 빙하기에 형성된 에스토니아의 야생이 보존돼 있고, 중세시대 성곽과 건축물 등 유형의 문화유산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유산 또한 지키고 보존하려는 에스토니아 사람들. 숲을 거닐고 카누를 만들고 습지의 야생동물들을 만나며 자연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미래'라는 에스토니아의 환경 철학을 보여줌

■ 해변 비치

해변과 비치를 통한 해양문화의 사례는 너무 많다. 세계의 유명 비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과 자유를 느끼게 함

- 세계유명 해변 비치: 하와이 와이키키, 프랑스 리비에라, 발리,푸켓,몰다이브 등

■ 하이드레이트와 해양심층수

해양이 갖는 천혜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는 주요 사례로 하이드레이트와 해양심층수를 들 수 있음

■ 양식

해양을 이용하여 인간이 필요한 자연자원이나 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얻기위한 방법으로 양식을 이용하며 다양한 생물의 양식 기법이 활용됨

2 경제적 관점

경제적 활동으로서 해양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분야와 활동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운과 항만 활동

해운과 항만활동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이다. 이들 활동을 해양문화의 연계 틀안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해저자원 및 수산 양식

해저의 많은 자원과 다양한 경관들이 경제적으로 또 관광의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수 산 양식을 통해 서도 해양문화를 실현할 수 있음

3 사회, 문화적 관점

■ 관광 및 해양관광 / 크루즈

■ 해양박람회/해양축제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같이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촉진하는 활동

■ 풍어제 체험

■ 워터프론트/ 해양레포츠(마리나 요트)

■ 바다낚시

■ 항만재개발

V. 여건변화와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 확장 전략

1 여건변화와 도입, 확장의 필요성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바다와 항만에 대한 바른 문화 정립과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그 실천방안으로는 다음의 정책방향들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

1) 환경친화의 세계적 경향성

환경을 강조하며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해양의 여러 활동들도 서로 연계하며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 생태를 유지,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건설과 개발에서도 지속가능한 (sustainable) 개발을 통한 환경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 국제적 현상이며 이는 해양문화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2) 국제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부문의 개선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국제적 연계와 의존성의 정도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의 확장과 발전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해양활동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3) 경쟁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이나 해상물류 활동 등에서 국가간 경쟁의 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양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 그리고 중, 장기적인 대안의 마련을 필수적이다.

4) 바다의 중요성 인식

바다는 인류의 미지의 자원 보고이며 기회의 영역이다. 우리는 3면이 바다이며 동아시아의 해양을 주도한 역사와 경험이 있다. 바다를 통한 국가의 잠재력의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개발은 중대한 민족의 과제다. 이를 위한 해양문화의 확산과 체계적 접근은 중요한 과제이며 필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5) 새로운 기회, 해양

해양은 새로운 기회이다. 심해저의 다양한 자원, 심층수의 활용, 하이드레이트의 활용 그리고 해양을 관광과 문화의 터전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활력이며 기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

6) 해양 기술 발전

해양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은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비전과 정책대안을 필요로 한다.

7) 인간 삶의 다양성 추구

인간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며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해양문화는 기존의 육지 중심의 삶의 형태에서 새로운 영역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하게 된다. 선박도 기존의 운송위주의 개념에서 정주와 관광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해양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인간 삶의 영역이 미래사회에 확장되고 현실화 될 것이 확실하다.

2 도입, 확장의 기본 방향

첫째, 환경친화적 해양·항만 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바다를 중심으로 삼는 그리고 바다를 지향하는 문화발전 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항만의 정체성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다고 볼 때, 바다를 다시 찾아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화정책이 시급하다. 무분별한 근대화 속에 도시의 획일적 문화로만 시야를 고정했던 것을 다시 바다로 열리며 다양성이 살아있는 환경친화적 해양·항만문화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항만 인근의 섬들도 외톨이인 채로 해양·항만의 문화 밖에서 걸돌고 앉고 도시와 조화되어 연계되고 어우러져야 한다.

둘째, 해양 레저·문화도시로의 지향이다. 바다와 섬과 항만도시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 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바다와 항만도시 개념에 입각해서 도시발전을 구상해야 한다. 21세기 도시발전의 핵심은 총체적 의미의 삶의 질 확보와 향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모형을 도출해야하고, 삶의 질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인 문화와 환경,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깨끗한 환경과 특색 있는 도시경관으로 정비된 도시, 넓고도 조용한 휴양지를 가진 도시, 그리고 상하

수도·공중시설 등 도시기본시설이 완비된 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성 있는 해양·항만 문화공간이 완비되어 고급의 문화를 쉽게 향유 할 수 있고,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생동감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레저·문화도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가 요청된다. 현행 항만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주민들이나 바다와 항만을 가까이서 접하고 이용하는 현지인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렵다. 바다와 항만은 지역에 여러 가지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항만의 개발은 현지주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개방적인 정보화시대의快適性(amenity)을 지향하는 바다와 항만문화의 도입이 요청된다. 바다와 항만은 본질적으로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우리 바다와 항만들은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는 물론 동시에 태평양으로의 개방성을 지향해야 한다. 바다를 자원 보고 이며 삶의 터전인 동시에 인접 국가와 조화를 이루며 쾌적한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간과 수요자 중심의 해양·항만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문화정책의 바탕에 견지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문화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 바다와 항만도시에서 새로운 지역문화를 일구며 도시의 삶을 영위할 주체는 시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다와 항만도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 변화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양·항만문화의 행위자 또는 제공자 보다는 일반 소비자인 시민중심의 해양항만문화 정책을 펴야한다.

여섯째, 관광과 체험공간(experience space)으로서의 해양·항만문화를 확장하는 일이다. 바다는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과 동시에 도전의 정신을 요구한다. 세계역사에서도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였듯이 바다는 인간 삶의 중요공간이다. 바람직한 바다와 항만 문화는 바다의 체험공간으로서 열려진 정책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서 바다와 항만이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와 열린 해양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일곱째,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해양·항만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문화와 비전을 넓혀 나가야 한다. 바다와 항만도시는 독자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해야한다. 이제 우리의 바다와 항만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계하는 교두보로서 변화된 여건을 발판으로 개방과 세계화의 무대로 나아가야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와 현재의 조건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바다와 항만문화발전, 미래지향적인 문화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해양문화비전(Maritime & Ocean Culture Vision)을 확립하고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¹¹⁾

11) 김홍섭, 21세기 새로운 항만문화의 정립방안, 2000.7,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 해양문화 도입, 확장 전략

1) 우리나라 해양문화 비전의 구축

(1) 세계 최고의 해양문화 대국 지향

우리에게는 동아시아를 주름잡고 해양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해상왕 장보고와 그의 시대는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를 통제하며 해상 교역과 해양문화를 주도하던 때이다.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교두보로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 교역, 물류의 중심으로서의 국가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해양문화 대국으로서의 비전을 정립하고 확장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2) 해양사상의 고취와 민족의 진취적 해양 기상(氣像) 선양

당대 해상제국 백제와 장보고의 신라 그리고 最古의 철갑선 거북선과 조선 세종조의 국가역량 등을 토대로 우리 민족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진취적 해양 기상을 새롭게 선양하는 길이 중요하다. 현 세계 제 5위의 선박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장하여 입체적 해양문화 강국을 지향한다.

2) 제도적 차원의 확장전략

(1) 관련 법, 제도의 확립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관련 법(법령명, 법령 본문)에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념과 정책적 입안, 추진 및 관할 영역(범주) 등에 대한 체계적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2) 행정지도 및 세부 지침 정비

해양문화 등에 관한 법령에 기초한 세부적인 지침과 정부(중앙, 지방)이 세부 행정 지침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금융, 세제 지원

해양문화의 경제, 사회적 영향의 크고 심대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련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이 요청되며, 정부(중앙, 지방)의 금융, 세제 등 지원과 진흥책이 요청된다.

(4) 관련 협의체의 결성 및 활성화

해양문화의 진흥과 진작을 위해 관련 정부 부서와 학계, 산업계 및 사회 단체 등의 효과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 분야의 경제, 사회적 영향의 크고 심대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련 활동 등에 관한 협력, 지원이 요청된다.

3) 추진 주체별 확장 전략

(1) 정부(중앙/지방)의 정책 방향

정부(중앙/지방)가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진작을 위한 마스터 플랜 (Master Plan)등을 준비할 필요성 요청된다. 해양사상의 고취와 진취적인 우리

민족성의 발현과 도약을 위해서도 해양문화 창달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부서와 관련 단체 등의 효과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의 입안이 절실하다.

(2) 사회, 민간 단체의 지속적 참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진작을 위해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사회 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개인 및 문화 소비자 차원 관심 증대

개인 및 문화 소비자 차원에서 개인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개인과 문화 소비자인 국민 개인이 바다를 통한 세계로의 열린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양문화의 진작을 위한 관심이 중요하다.

4) 기능(영역)별 확장 전략

<그림 1>에서와 같이 해양문화는 다양한 기능과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접근 방법이나 관심도 영역에 따라 다양하며 전문성이 요할 수도 있다.

(1) 기능별 효과적 정보 교환

해양문화를 확장하고 창달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간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누며, 상호 이해와 협력이 요청된다.

(2) 근거법에 의한 협력의 준거 틀 마련

상위 근거 법에 각 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준거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호협력의 주체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들의 충돌이나 상치되는 부분도 조정하여 기능별 협력을 지속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부문별 발전노력 경주

그리고 각 영역별로는 역량과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가 세계 최고 최대의 해양문화 대국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각 부문의 극대화된 역량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더 넓은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5) 공간/시간적 연계, 확장 전략

해양문화는 다양한 기능과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다면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특히 오늘날의 많은 의사결정과 소비 등 경제행위가 온라인(on-line)에서 결정되고 있고 인터넷이 핵심적인 정보원(information resources)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과 인터넷을 활용한 해양문화의 접근과 확산 및 전향적 개선이 요청되며,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를 활용한 정책과 전략의 전개가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가 갖는 통시적 및 시간 유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문화에 대한 교육과 역사적 체계화와 확산이 요청된다. 해양문화를 확장하고 창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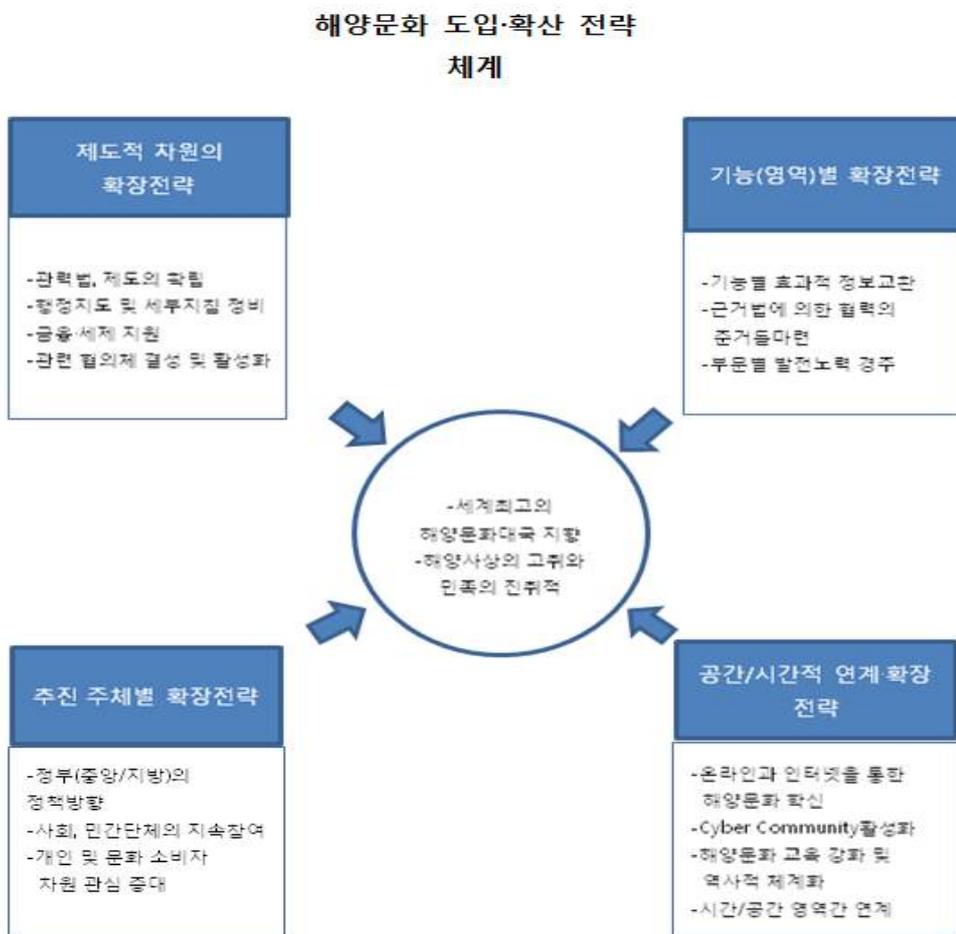
과 공간적 각 영역간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누며, 연계,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4 해양문화 도입,확장 전략 추진 체계

1) 해양문화 도입,확장 전략 추진 체계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과 전략적 접근이 요청된다. 전술한 전략적 대안들을 통한 체계적인 대안의 마련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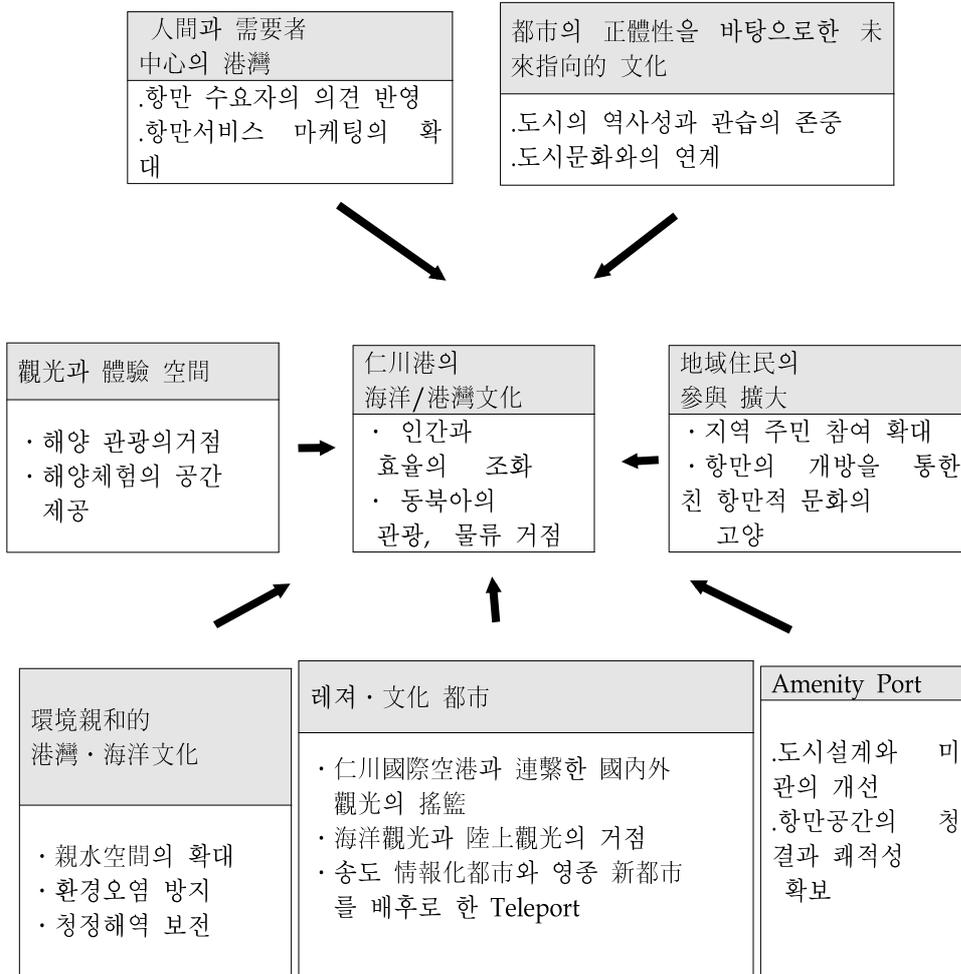
<그림2> 해양문화 도입,확장 전략 추진 체계



2) 해양문화 도입의 사례 (인천항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는 나름대로의 역사와 발전 배경이 있다. 각 도시와 항만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도 다를 수 있다. 해양과 항만을 배경으로 하는 각 도시들은 나름대로의 여건을 토대로 해양,항만문화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가 살고 있는 인천항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인천항의 해양,문화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림3> 仁川港의 海洋, 港灣文化 vision



VI. 결론 및 제언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하며, 인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문화가 중요시되며 모든 활동에서 문화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를 통한 그리고 문화의 정립을 위한 활동과 전략들이 중요시 되고 있다. 기술, 산업분야에서도 인간의 감성이나 문화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자 노력 해 오고 있고, 바다는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도전의 이미지로 다가오며, 섬과 항만은 인간이 살고있는 육지와 동경의 바다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삶과 일과 놀이와 상상의 공간으로서 바다와 섬과 항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모해 왔으며 시간과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다양성을 담지하는 문화의 형태로 발전되게 된다. 해양문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로서 문화, 관광, 환경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함이 크고 향후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정립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도입과 확장에 대한 이론적,전략적 대안의 탐색이 제안되고 시도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아키히미치 토모야, 이선애 역, 『해양인류학: 해양의 박물학자들』, 민속원, 2005.
- 알프레드 마한,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책세상, 1999.
-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 주강현, 『적도의 침묵: 해양문명의 교차로. 적도태평양을 가다』, 김영사, 2008.
- 최성락, 「고고학에서 본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교류」, 『도서문화』 제25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1~28쪽.
- 홍석준, 「종교담론의 문화적 특성과 그 의미: 전남 완도군 생일도의 사례」, 『도서문화』 제29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 403~439쪽.
- 후루타 가즈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황해교역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음·강진아 역, 『동아시아 경제문화 네트워크』, 2007, 231~251쪽.
- 전국경제인연합회, 「항만의 경쟁력 제고과제」, 1997. 9
- 김홍섭, 21세기 새로운 항만문화의 정립방안(2000.7,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한국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1992.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1995.
- 배규환, 「미래 사회학」, 사회비평사, 1995.
- 이규형, 「예술경제학」, 서울, 을유문화사, 1960
- 池上惇, 「社會 政治 經濟」, 경도 출판, 1996
- 池上惇, 植木浩, 福原義春 著 황현탁 역, 「文化經濟학」, 나남출판. 1999
- Amartya Sen,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85
- Getz, Donald,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Co. Ltd. 1991
- Morris, W "The Lesser Arts. Delivered Before the Trader's Guild of Learning " Dec. 4, The collected Works of Willam Morris with Introduction his daughter May Morris, vol. 21 Longmansgreen and Company, 1925
- Myerscough, John,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in, Policy Studies Institute, 1988.
- J. Ruskin(1857), The Political Economy of Art, London, Smith, elder and Co.1857: reprinted in Joy ForEver: George Allen,1880
- Greg, Richard and Carolina Bonink(1994), "Marketing Cultural Tourism in Europe,"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Vol. 1, No. 2.
- Ruskin, J. "A Joy Forever" being the substance of Two Lectur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rt, Library Edition ,The Works of John Ruskin, Cook, E.T. and A. Wedderburn eds. George Allen, London, 1905, pp. 54-169.4)
- Acheson, James, M., "Anthropology of Fishing."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0, 1981, pp.275~316.
- Acheson, James, M., The Lobster Gangs of Maine, Hanover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8.
- Akimichi, T., "Conservation of the Sea: Satawal, Micronesia," In Traditional fishing in the Pacific: Ethnographical and Archacological Papers from the 15th Pacific Science Congress. A. Anderson ed., Department of Anthropology, Bernice P. Bishop Museum, Honolulu, 1986, pp.15~33.
- Bailey, C. and C. Zeuner, "Community~based Fisheries Management Institutions in Indonesia", Maritime Anthropological Studies 5(1), 1992, pp.1~17.

< 요약 >

우리나라 새로운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

김홍섭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 하며, 인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모든 활동에서 문화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를 통한 그리고 문화의 정립을 위한 활동과 전략들이 중요시 되고 있다. 바다는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도전의 이미지로 다가오며, 항만은 인간이 살고 있는 육지와 동경의 바다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이해된다. 바다와 섬과 항만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경제활동이며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삶과 일과 놀이와 상상의 공간으로서 바다와 항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모해 왔다. 해양활동은 시간과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다양성을 담지하는 문화의 형태로 발전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론적 검토 그리고 도입 및 확장을 위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모색되었다. 해양문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로서 문화, 관광, 환경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함이 크고 향후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이론적 틀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해양문화의 도입과 확장이 요청되며, 세부 전략과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크다고 본다.

Key word: 해양문화, 수산문화, 항만문화, 문화, 해양예술, maritime culture, ocean culture, port culture, maritime art, fishery culture